

광주·전남 전략산업 정부 예산안 대거 반영...사업 청신호

市, 차세대 반도체 기반 구축 AI 실증환경 조성 탄력 道, 마한 문화권 발굴·그린수소 에너지 섬 용역 편성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략산업 분야 사업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각종 추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광주시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비 3조2천397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문화·관광 사업에는 ▲아시아 예술융합창작센터 조성 7억원 ▲아시아 설화·신화 길러콘텐츠 개발 20억원 ▲광주비엔날레 인공지능(AI) 라

기비용 구축 15억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7억5천만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645억원 등이 반영됐다.

광주 미래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에는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펌프 구축 14억원 ▲공공개발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70억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563억원 ▲전기차(EV) 국민경제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10억원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29억4

천만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0억원 등이다.

따뜻한 돌봄도시·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15억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40억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127억원 ▲장륙읍지 탄소흡수원 조성 7억원 ▲하남산단 광역단위 악취 저감 31억5천만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73억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에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1천847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천84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839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 개설 32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31억원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 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
전남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현안 사업비 8조2천30억원이 대거 확보되면서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백신·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해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경우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5천만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원 ▲산단형 초임계(S)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4억원 등이다.

첨단 전략 산업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원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가고 싶은 섬 조성 10억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17억원 ▲서남해안생태 정원도시 조성 7억원 ▲작은 섬 활성화 35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 기반 확충 사업에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 21억원 ▲생산-유통까지 농업 전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원 ▲전국 생산량의 72%를 차지하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 산업 특화형 전용 구역 지정 50억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천84억원 ▲남해안고속도로 2단계 1천523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840억원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354억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708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640억원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선강·변은진기자

'8월 광주창업포럼' 오늘 개최

광주시는 3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2년 창업지원 멤버십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3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지역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유관기관 실무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8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창업포럼은 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자들로 구성된 민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창업 유관기관, 투자자 등이 협업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스타트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 ▲인문·경영 융합특강(이동규 교수) ▲창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박선강기자



민선8기 첫 공공기관장회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시 산하 2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정방향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과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김성환 전 동구청장 내정

광주시는 30일 "광주환경공단 제8대 이사장에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 2명을 추천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한 끝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적임자로 최종 낙점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후 전남도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민선6기 광주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미국 기후변화연구소에서 1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한 환경·경영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9월13일 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같은달 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강기자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김병수씨 임명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김병수씨가 임명됐다.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인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0일 김씨를 원장 공모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3년이다.

김 원장은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직자, 한국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교통문화 분야 전문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 이사 등을 지냈다. /박선강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더 낮은 자세로 시민 뜻을 잘 들어 교통이 안전한 도시 광주가 되도록 홍보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道-신안군-발전사, 해상풍력 성공 추진 힘 모은다

특별법 조기 제정·주민 수용성 확보 등 논의

전남도가 신안군, 발전사와 한자리에 모여 해상풍력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전남도는 30일 신안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사 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범 도입에 대응, 해상풍력 산업 성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신안군, ㈜두손건설, SK E&S, 한화건설, 크레도 오프쇼어(㈜) 전남개발공사, 한국전력, 케이윈

드파워㈜, 늘샘우이 해상풍력발전, ㈜유탑건설 등 신안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회원사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사업자들은 ▲특별법 조기 제정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항만·배후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해 전남도와 신안군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해상풍력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

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산업부와 국회를 방문해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또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서두르고 한전과 공동으로 관련 시·군, 지역 주민과 지속 협의를 통해 신안 1단계 사업 준공 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4월 해남군, 대한조성과 함께 '화원산단 개발·지원 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화원산단이 적기에 개발 완

료되면 국내에 부족한 해상풍력 항만·배후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해상풍력사업 성공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안군과 협력해 발전사와 주민 대표가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장은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전남도와 신안군 책무"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市, 정보통신공사업체 150곳 현장 행정지도 실시

광주시는 30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 150곳에 대한 현장 행정 지도를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정보통신공사법 제63조(공사업체의 지도감독 등)에 근거

해 추진하며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법 등록증 대여·기술능력 확인 ▲하도급의 적정 및 불법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 ▲정보통신공사법별 속지와 의무사항 홍보 ▲업체 운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의견청취 등에 대해 실시한다. /박선강기자

추석

박진수부각
PARKJINSOO BUGAK

행복한 명절에
사랑과 정성을 선물하세요.

NAVER 박진수부각

박진수부각 명절선물세트 판매!

3팩	13,000원
5팩	21,000원
8팩	34,000원
10팩	42,000원
12팩	50,000원

* 찹쌀김부각 / 찹쌀다시마부각 선택 가능 * 배송비 3,000원 별도

농부마음(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TEL. 062-941-8511 / 010-3602-6623